



종로 바라캣서 英 세자드 다우드 개인전

영국 작가 세자드 다우드 개인전 ‘리바이어던: 흑점과 고래’(사진)가 1일 서울 종로구바라캣에서 개막했다.

작가는 기후 변화, 해양 복지, 민주주의, 이주, 정신 건강 등이 시대 난제를 여러 전문가와 놓고 고민하는 ‘리바이어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계 순회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리바이어던’의 중심을 이루는 영상작업의 네 번째 에피소드를 선보인다. 이번 영상 배경은 태양계를 덮친 재난으로 소수만 생존한 가상의 미래다.

이번 전시에는 연오랑세오녀 설화를 주제로 한 신작 회화도 출품됐다. 작가는 연오랑을 그리워한 세오녀가 바위에 놓인 연오랑 신발을 본 후 그를 따라 일본으로 가 그곳의 왕과 왕비가 되는 이야기를 주목했다.

작가는 이야기 속 신발을 ‘잃어버린 난민의 소지품’으로 여기고, 신라에서 해와 달의 정기를 되찾고자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을 일몰의 순간으로 풀어낸다. 전시는 11월 4일까지.